

감정교육과 근대남성의 탄생

— 이광수의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

신 수정*

1. 초기작과 남성적 성장의 기록
2. 감상성의 젠더적 의미
3. 수행적 여성성과 사랑에 대한 낭만적 동경
4. 감정교육과 근대남성의 탄생
5. 결론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전임대우강사

국문초록

『청춘』에 게재된 이광수의 초기 소설들은 한 남성의 일련의 성장의 기록을 내포함으로써 근대적 남성이란 무엇인지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근대 남성이란 무엇보다도 기존의 관습에서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자질들, 예컨대 감상성과 낭만적 사랑에 대한 동경을 내면화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기존의 남성적 영웅들을 전복시키고 삶을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경험한 역사상 최초의 남성들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젠더적 경계를 무화시키는 이 '수행적 여성성'이 영원히 찬미되거나 고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욕망은 언제나 사회적 제도나 금기와 충돌한다. 사회의 유지, 보지를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이 욕망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 조율을 위해 근대가 발명한 욕망의 조율장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설이다. 소설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교육의 양상은 시민계급의 욕망을 조율하는 미시적 장치로 작동한다. 이 장치를 통해 자신의 욕망과 사회적 관습 사이를 중재하고 새로운 내면적 도덕률을 확립하는 근대 남성 부르주아가 탄생한다. 이광수는 이 과정을 우리 소설에 가장 전형적으로 형상화한 소설가이다. 우리가 그를 감정교육가, 내면적 도덕률의 창안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의 소설은 여성적 자질로 간주되어온 덕목들을 활용하고 전유하는 수행적 여성성을 통해 새로운 감수성과 내면적 도덕률로 무장된 근대남성의 상을 제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센너발명가에 나름 아니나.

핵심어 : 성장소설, 젠더, 감상성, 수행적 여성성, 감정교육, 내면적 도덕률, 젠더 발명가

1. 초기작과 남성적 성장의 기록

일어 단편 「사랑인가」(『백금학보』, 1909.12)에서부터 출발한 이광수의 소설 쓰기는 1914년 발간된 최남선의 『청춘』¹⁾에 「김경」(1915. 3), 「소년의 비애」(1917.6), 「어린 벗에게」(1917.11~1918.1), 「방황」(1918.3), 「운광호」(1918.4) 등의 단편들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선다.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들을 새로운 사회의 창조자로 특화하고자했던 최남선의 기획²⁾은 이광수라는 탁월한 소설가의 정서적 감응력을 통해 그 의도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이광수는 인생의 최고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17년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라고 할 만하다. 이 해 그는 『매일신보』에 장편 『무정』을 연재했으며, 그 연재가 끝난 뒤엔 『매일신보』 특파원의 자격으로 삼남지방을 돌아보고 난 뒤 『5도 답파여행』을 씀다. 그리고 연이어 또 다른 장편소설 『개척자』가 연재되기 시작한다. 『혼인에 대한 管見』을 비롯한 많은 논설과 시, 희곡 등이 동경유학생 학우회지인 『학지광』에 게재된 것도 이 때다. 그러니까 1917년 이광수는 『매일신보』와 『학지광』, 그리고 『청춘』 등 적어

1) 1914년 10월 1일자로 창간되어 1918년 9월 통권 15호를 내고 강제폐간당한 『청춘』은 『少年』(1908.11.1~1911.5.15), 『붉은 저고리』(1913.1.1~1913.6), 『아이들 보이』(1913.9.5~1914.9), 『새별』(?~1915.1.5)의 뒤를 이어 다섯 번째로 창간된 최남선의 잡지다. 1908년부터 1919년 직전까지 최남선은 적어도 다섯 번 이상의 창간과 폐간을 거듭해왔는데 『청춘』은 이 작업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근수,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목차집』, 재판본, 한국학연구소, 1988;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1, 현암사, 2004. 참조).

2) 아리에스에 따르면 근대 전환기에는 '젊은이들'이 시대의 특권층으로 등장한다. 이때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모두 '젊은이'에 수렴되는 용어들이다.(Philippe Ariès, *L'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ancien régime*,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pp.86~87).

도 세 개 이상의 매체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³⁾

그러나 초창기 이광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 세 가지 매체 가운데 『매일신보』와 『학지광』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편이다. 장편 『무정』의 기념비적 성격을 논하고 있는 많은 논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초창기 이광수의 논설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규명하고자하는 논문들 역시 이들 매체가 이광수 문학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강조하는데 주력한다.⁴⁾ 소설가로서의 이광수와 사상가 혹은 문학이론가로서의 이광수를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선 이 매체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다보니 『청춘』을 중심으로 한 이광수의 글쓰기, 즉 초기 단편소설에 대한 독자적인 규명이 다소 소홀해진 측면은 있다.⁵⁾ 이 소설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광수의 자전적인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김경」의 오산학교에서의 교사 경험이나 「소년의 비애」의 친족사적 맥락, 「방황」, 「윤광호」 등에 나타나는 동경 유학시절의 경험, 그리고 상해와 해삼위 등을 주유하는 「어린 벗에게」의 방랑 경험 등은 이광수의 개인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명확한 의미를 얻기 힘들다. 이들 소설들을 내용이나 형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년으로부터 성인에 이르는 이광수 세대 남성인물들의 일련의 정신적 물

3) 서영채, 『사랑의 문법』(민음사, 2004), p.37.

4) 최근의 것들만 살펴보더라도 김병구의 「이광수의 『무정』론」(『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4), 이종호의 「이광수의 『무정』론」(『어문연구』 1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등 『무정』 연구가 현재형으로 진행 중이며, 이동재의 「이광수의 '정'과 한국 근대문학」(『현대문학이론연구』 24,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과 최주환의 「개조론과 근대적 개인」(『어문연구』 1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등 이광수의 논설에 대한 관심 역시 식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임영봉의 「이광수 문학과 식민지 근대 체험」(『어문연구』 11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은 이 단편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라고 할 만하지만 이들을 장편 『무정』으로 가는 '습작'으로 치부하고 마는 아쉬움이 있다.

질적 성장의 기록이라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⁶⁾ 무엇보다도 이 단편들은 ‘김경’을 제외하면, 탈고시기에 따라, 어린 소년으로부터 청년 학생을 거쳐 사회의 한 일원으로 조금씩 성숙해가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⁷⁾ 이 물리적 성장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흥미로운 테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이경훈⁸⁾과 나병철⁹⁾은 이 시기 이광수의 단편들에 주목하며 ‘청년’과 ‘성장’의 의미를 탐문한 바 있다. 물론, 이광수 소설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낯선 연관이 아니다. 『무정』을 성장소설 혹은 교양소설의 관점에서 읽으려는 시도는 오랜 관행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성장을 청년이라는 성적 범주와 관련지어 살펴보려는 시도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김복순¹⁰⁾이 『무정』에 나타나는 소설 형식의 젠더화 양상을 분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설 장르 자체의 젠더적 혁명성과 그것의 독특한 기제까지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정』의 전지적 시점과 내적 초점 장치들이 일종의 젠더적 기술 장치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형식’이 함축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규명하는데 성공한 이 논문은 그간의 페미니즘 서사학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나 페미니즘 이미지비평의 내용주의를 넘어서는 일정한 성과

-
- 6) 『무정』의 이형식이야말로 이광수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을 터이지만, 그 이형식의 기원을 따질 경우, 일러소설 「사랑인가」로부터 이들 단편들로 이어져 오는 하나의 유사한 캐릭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7) 「어린 벗에게」를 제외한 다른 소설들은 발표시기와 탈고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탈고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소년의 비애」(1917.1.10), 「운광호」(1917.1.11), 「방황」(1917.1.17), 「어린 벗에게」(1917.11~1918.1) 순으로 씌어졌음을 알 수 있다.
- 8) 이경훈, 「오빠의 탄생」, 『오빠의 탄생』(문학과지성사, 2003).
- 9) 나병철, 「이광수의 성장소설과 가족 로망스」, 『비평문학』 21(한국비평문학회, 2005).
- 10) 김복순, 「『무정』과 소설형식의 젠더화」, 『대중서사연구』 14(대중서사학회, 2005).

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정』이 남성중심주의 미학에 입각해 있다는 점과 소설 장르가 '성적 지배 양식'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것은 그간의 페미니즘 서사학이 행하고 있는 남성텍스트에 대한 배제주의와 페미니즘이미지비평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 쉬울 것이다.

본고는 이광수의 소설들이 분명 남성적 응시를 내면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성적 성장의 기록으로서 이광수의 초기 단편소설들은 그간 터부로 간주되어온 여성적 자질을 전유하고 활용하는 남성인물의 사회적 형성과정을 통해 그간의 서사물들에서 재현된 남성인물들과 구별되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내면적 도덕률을 확립하고자 하는 욕망을 분명히 한다. 이 욕망은 이광수의 소설들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적 복합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소설이 성적 지배 양식, 즉 젠더를 조율하는 미시적 장치로 작동한다고 해서 소설 장르 자체를 페미니즘의 대의에 위배되는 형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소설 장르가 함축하고 있는 여러 혁명적 계기를 간과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소설의 고유한 기제 및 다른 담론들과의 미세한 차이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본고는 이광수의 초기 소설들에 대한 젠더적 규명을 통해 그것이 이제까지의 역사에서 여성적인 것 혹은 남성적인 것으로 가정된 젠더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을 교란시키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확립하는 과정을 소설 장르의 고유한 기제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소설이 수행한 감정 혁명이 근대남성의 내면적 도덕률의 규율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는 작업으로 귀결될 것이다.

2. 감상성의 젠더적 의미

이광수의 초기소설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개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낯선 환경 속으로 던져진 경우가 많다. 「소년의 비애」의 문호나 「윤광호」의 광호, 「방황」의 화자 등은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유학중이며 「어린 벗에게」의 임보형은 고국을 떠나 이방을 떠돌고 있다. 이들 가운데 낯익은 환경 속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위 ‘뿌리뽑힌 자’들의 삶이 주어졌을 뿐이다. 더욱이 이들은 ‘고아’이기까지 하다. 고아 혹은 고아의식이란 말만큼 이광수 문학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자주 이용되어온 용어도 없지만, 이 용어는 여전히 이 인물들의 내밀한 정서를 환기시켜주는 하나의 기호로 작용한다. 그들은 고아이기 때문에 더 외롭고 더 정에 굶주려 있다.

타지에서 고아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외로움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집에 혼자 앉았을 때에 或은 잠자리에 혼자 누웠을 때에 또 或은 혼자 二十餘分이나 걸리는 學校에 가는 길에 形言치 못할 寂寞과 悲哀”¹¹⁾를 느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기까지 한다. 병이라도 걸리면 이 ‘감상성(sentimentality)’은 더욱 심화된다. 타국의 기숙사에서 병고에 신음하고 있는 「방황」의 화자가 상기시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지난 6,7년간 힘든 생활 속에서도 조선청년들을 가르치고 틈틈이 ‘되지도 않는 글’을 지어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하며 나름의 문명을 획득한 청년이다. 재주도 있

11) 이광수, 「방황」, 『전집』 8(삼중당, 1971), p.96.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김경」을 제외한 다른 작품들, 즉 「소년의 비애」, 「어린 벗에게」, 「윤광호」 등은 전집의 페이지 수만 병기하도록 한다.

고 그를 사랑해주는 친구들도 많다. 그러나 외로움과 병고는 이 모든 것을 회의하게 만든다. 심지어 그를 지탱해주는 신념이라고 할 '조선에 대한 사랑'까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그에게 절실한 것은 그가 단지 혼자라는 사실뿐이다. “果然나는 혼자로다. 이 二十四조나 되는 행하게 비인 寢室, 싸늘한 空氣 中에 灰色 구름 덮인 차디찬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발발 떨고 누워있는 모양으로 나는 혼자로다.”(pp.94~95) 병고로 인한 고독과 체념은 「어린 벗에게」에서도 두드러진다. “異域逆旅에 외로이 病들어 누운 몸”(p.66)인 임보형 역시 「방황」의 화자처럼 열에 들떠 생명의 유한함과 인생무상을 절감한다. 사랑과 미움에 대한 반성, 오늘까지 공부한 것에 대한 허망함, 국가와 재산, 명망에 대한 회의, 선과 악에 대한 사유가 그를 괴롭히고 급기야는 “來日 죽으면 어떠며 어제 죽었으면 어떠랴-아주 죽어나지 않았은들 어떠랴. 아무 때 한 번 죽어도 죽기는 죽을 人生이요, 죽은 뒤면 王公이나 거지나 사람이나 돼지나 乃至 귀뚜라미나 다 같이 스러지기는 마치 一般이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아까울 것이 무엇이라”(p.67)라는 체념으로 이끈다.

이 체념은 '방황'이라는 표제와 '어린 벗'을 호명하는 '편지'라는 제도적 장치와 무관하지 않다. '방황'이라는 용어에 대한 편향성과 강한 동경을 함축하는 「방황」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病席에서 일어나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 便紙를 쓰려할 제 더욱 이 感想이 깊어지나이다.”(p.66)라는 어구를 동반하는 「어린 벗에게」의 서두가 이를 암시한다. 방황이라는 낭만적 개념의 의미나 '편지'라는 매체의 특성을 자각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내면이 이토록 감상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고향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고아임에 틀림없다. 병이라도 들면 이 감상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조건들

이 초래하는 그들의 내면적 움직임은 존재론적 고독이나 인생무상 등의 '감상'으로 '자각'하는 데는 또 다른 외적 장치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자전소설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이광수의 독서편력을 연상시키는 문학수업의 내력이 구체적인 고유명사와 함께 펼쳐지고 있는 「김경」은 이들 초기 이광수의 성장소설의 내면적 기원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 후 니어 「良人の自由」 「靈ガ 悶ガ」 「飢渴」等 目下氏の 熱烈하던 情을 吐露한 作物을 夜以繼日하여 耽讀하매 동키호테는 아니언만은 金鏡 제 몸이 거위 小說中人物이 되다 심히 되어 言語와 行動이 아조 溫順謙遜하게 되고 各금 무슨 默想에 茫然히 自失하기도 하며 或 夜半에 집을 떠나아 郊外에 逍遙도 하여 보며 밤이 새도록 書案에 지쳐 붓도 들어 글도 지어 보고 或 히스테리 的으로 울기도 하여 보니 어느덧 同輩間에는 少年哲人이라고 탁號도 생기고 同窓中 年富한 이는 김경의 疲弊하여 감을 근심하니 그의 多年 辛苦하던 不眠症도 當時의 所得이오 病中에도 또 病되는 雜念도 그 때부터 어든 바라라.12)

이 인용문은 김경의 '감상성'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선천적으로 향상'되려는 마음만 있을 뿐 가정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감화 받을 데가 없었던 김경은 우연히 톨스토이와 目下尙江과 德富蘆花 등의 책을 접하며 어린 가슴에 '高熱한 불바다'를 느끼게 된다. 目下의 소설을 탐독하는 가운데 소설 속 작중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하고 망연히 목상에 잠기는 한편, 하릴 없이 야밤에 산책을 하기도 하고 밤을 새며 글을 써보거나 히스테리하게 울기도 한다. '불면증'과 '잠냄' 역시 소설 탐독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감정상의

12) 이광수, 「김경」, 『청춘』 1, 영인본(역락, 2001), p.921.

변화는 해가 지나 친구의 소개로 ‘바이런’을 알게 되면서 더욱 과도해진다. ‘내적 고민’과 ‘번민’, 그리고 ‘고통’이나 ‘죽음’과 같은 단어가 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술을 마신다든가 이성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등 전형적인 ‘바이런리즘’의 사도가 된다. 이제 그의 내면은 정과 의를 추구하는 톨스토이와 사랑과 감정을 추구하는 바이런 사이에서 분열한다. “本是 兄弟姉妹의 家庭的 溫味를 모르고 자란”(p.922) 그는 마침내 서양 혹은 일본문학에 대한 독서체험을 통해 아우의 사랑과 누이의 아름다움, 그리고 동무들의 다정함을 대리체험하며 자신의 삶을 그들의 감정에 빚대어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독서체험에 근거한 김경의 감정상의 격렬한 변화는 이제까지의 전통에서는 남성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주로 여성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어왔다.¹³⁾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면증과 잡념에 사로잡힌 채 히스테리하게 우는 남자를 이상적인 남성으로 상정하기란 지극히 곤란하다. 오히려 이러한 의미의 감상 혹은 감정이란 오랜 시간 여성적인 자질을 대변하는 속성으로 이해되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성을 남성적인 것과 관련짓고 감상 혹은 감성을 여성적인 특질 가운데 하나로 취급해온 성별감정분리의 역사는 짐작보다 연원이 깊다. 오랫동안 여성에겐 감정을 드러낼 것이 기대되고 허용되어온 반면, 남성에겐 감정을 거부하거나 억누를 것이 요구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감정에 대한 특권화된 접근이 용인되는 유일한 대상은 여성뿐인 것으로 가정되어 왔던 것이다.

물론, 이 가정은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가치평가를 포함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구별’의 전제로 이용되어 왔다. 감정이 이성에 비해 열등

13) C. Tavris, *The Measure of Woman*, 히스테리아 역,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또하나의문화, 1999).

하게 취급되거나 여성적 자질과 남성적 가치의 위상을 다르게 책정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오늘날 남녀 성별 역할분리의 근거로 이용되는 것 역시 이 전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낸시 암스트롱(Nancy Armstrong)은 18세기 영국 소설들에 이르러 이 인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18세기 영국 소설은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출신성분이나, 지위, 부와 같은 외면적인 것들이 아니라 행동상의 미묘한 뉘앙스나 분위기 등 내면적인 자질에 의해서라는 것을 암암리에 전파하기 시작한다. 필딩이나 스톤의 소설들에서 기존의 남성적 영웅들을 전도시키고 삶을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남성 인물들을 만나기란 어렵지 않다.¹⁴⁾ 그들은 자신의 소설 속 남성인물들을 여성적 경험을 전유하는 남성으로 가정함으로써 독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시민적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기도 하였다. 시민계급은 감정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도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미식가가 미각을 훈련하듯 도덕적인 감정 또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귀족적 가치에 대한 자신들의 열등감을 만회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시민의 도덕은 감정의 훈련이자 고도의 사랑의 문화라는 가정이 자리 잡게 되었다.¹⁵⁾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설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특히 눈물과 감상과 고독에 탐닉하는 이광수 초기 단편소설의 남성인물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과연 기존의 봉건적인 남

14) Nancy Armstrong, *Desire and Domestic Fiction: A Political History of The Nov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25~27.

15) Wolfgang Rath, *Liebe Die Geschichte eines Dilemmas*, 장혜정 역, 『사랑, 그 딜레마의 역사』(이끌리오, 1999), p.176.

성 특질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남성형'이라고 할 만하다. 「소년의 비애」의 문호는 그 대표적인 경우다.¹⁶⁾ “그는 아직 女子라는 것을 모르고 그가 交際하는 女子는 오직 從妹들과 其他 四五人 되는 族妹들이라. 그는 天性이 女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父親보다도 母親께, 叔父보다도 叔母께, 兄弟보다도 姉妹께, 特別한 愛情을 가진다.”(p.58) 문호는 '천성'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고 특별한 애정을 느낀다. 이러한 여성성은 “以前에는 서로 안고 손을 잡고 하던 누이들이 次次次次 가까이 안기를 그치고 손을 잡기를 그치고 彼此의 사이에 漸漸 多少의 距離가 생기는 것”(p.59)을 보고 슬퍼하거나 悲感해 하는 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문호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여전히 남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젠더(gender)적으로 볼 때 여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¹⁷⁾

文浩는 文海를 사랑하긴만 文海는 文浩의 感情的인 것을 싫어하였다. 그러므로 文浩가 姉妹들 속에 섞여 노는 것을 恒常 嘲笑하고 姉妹들이 文浩에게 醉하는 것을 말은 못하면서도 恒常 不滿히 여겼다. 그러므로 文海는 姉妹界에 一種의 尊敬은 받으나 親愛는 받지 못하였다.¹⁸⁾

문호와 동갑인 종제 문해는 문호의 성적 변환 및 가장(假裝)을 전

16) 이 새로운 남성이 소년이나 청년으로 표상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아직 완전한 어른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과 청년의 미완상태는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도래할 조건으로서 충분히 납득가능하다.

17) 한승옥은 「동성애의 관점에서 본 〈무정〉」(『현대소설연구』 2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에서 『무정』에 나타나는 형식과 우선의 관계에 주목하며 이를 '게이적 감수성(gay sensibility)'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르면 매사에 수줍어하고 소극적이며 변덕이 심한 형식의 기질은 게이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인물의 특질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무정』은 이형식의 여성적 성격이 암호화되어 내재된 소설로 이해된다.

18) 이광수, 「소년의 비애」, 앞의 책, p.59.

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문호가 '여자'들과 섞여 노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조소하며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다. 문해는 기존의 자신의 성적 정체성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문학적 호오에서도 드러나는데, 문호가 미적, 정적인 문학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문해는 지적, 동적 문학을 선호한다. 예술지상주의가 문호의 것이라면 사회를 교화하는 일 방편으로서의 문학은 문해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기질과 예술관의 차이가 이 두 동갑남성의 삶의 모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주 있고 총명한 사촌동생 난수를 천치에게 시집보내게 되었을 때, 문호는 이에 분노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하지만 문해는 그들의 아버지들처럼 양반의 체면과 가문의 유지를 위해 이를 수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 문호가 자매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문해는 그들의 부모, 특히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를 대리하는 측면이 있다. 문호의 도덕은 여성과 자매의 입장을 대변하고 문해의 그것은 남성성과 가부장의 관점에 국한된다.

이광수가 이 두 남성인물 사이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그는 기존의 남성들과 구분되는 문호의 기질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런 점에서 어느 집에 가서도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성급한 성미를 지닌 문호가 자매들과 둘러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책에서 읽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웃고 떠드는 광경은 이 새로운 남성상이 가져온 소설 상의 변화이자 가히 정치적 혁명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이제 문호는 여전히 종족의 일원으로 사고하는 남성들 사이에 사랑과 결혼에 관한 새로운 사상을 전파시키며 소위 '시민적 도덕'에 기초한 새로운 남성인물의 가치를 웅변하는 새로운 남성영웅으로 자리 잡는다.

3. 수행적 여성성과 사랑에 대한 낭만적 동경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성을 수행적(performative)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것은 일종의 연극 속의 배역이자 가면과 같은 기호에 다름 아니다. 가면무도회에서 가면을 바꿔 쓰듯 어느 하나로 고정될 수 없는 것이다.¹⁹⁾ 이광수 소설의 남성인물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이기도 하다. '나'의 성적 정체성이 오랜 세월 '남성 되기'와 '여성 되기'의 결과 만들어진 것이라면, 고정된 성적 정체성은 허구에 가까워진다. 수행적 여성성이 성에 관한 고정된 경계를 이월하며 관습화된 성역할을 가볍게 넘어서는 것은 그 때문이다.

동성애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윤광호」를 보자. 그는 비록 고아지만 대학 당국으로부터 '특대상'을 받고 각 신문에 사진과 약력이 실림으로써 유학생 간 명예가 한껏 고양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 인물의 심층에는 어떤 '결락(缺落)'이 있어 크고 깊은 '공동(空洞)'을 형성하고 있다. 소설에서 이 결락과 공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차에 동승한 소년소녀들에 대한 '쾌미감'과 관련된 것이라면 성적 취향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光浩는 막연히 人類에 대한 사랑, 同族에 대한 사랑, 親友에 대한 사랑, 自己의 名譽와 成功에 대한 渴望만으로 滿足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누구나 하나를 안아야 하겠고 누구나 하나에게 안겨야

19) Judith Butler, *Antigone's Claim*. 조현순 역,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2000; 임옥희, 「젠더의 가면무도회와 불확실한 삶」, 『문예중앙』, 2005, 겨울호 참조.

하겠다. 그는 미지근한 抽象的 사랑으로 滿足지 못하고 뜨거운 具體의 사랑을 要求한다.”(p.98) 이 구체적 사랑에 대한 갈구가 결국 동성인 P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로부터 광호는 새로 外套를 맞추고 새로 깃도 구두를 맞추고 새로 모직책보를 사고 새로 上等石儉을 사고 아침마다 香油를 발라 머리를 가르고 그의 쇠 잠그는 册床舌盒에는 新聞紙로 꼭꼭 싼 것이 있다. 광호는 밤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 新聞에 싼 것을 끄집어내어 그래도 누가 보지나 앓는가 하여 四方을 살펴보면서 그 新聞에 싼 것을 낸다. 그러고 휘하고 한숨을 쉬면서 거울에 대하여 그 新聞에 싼 것을 바르고 얼굴도 여러 가지 模樣을 하여 보아 아무쪼록 얼굴이 어여빠 보이도록 하였다. 그 신문에 싼 것은 미안수와 클럽白粉인 줄은 광호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²⁰⁾

위 인용문은 동성 P에 대한 사랑에 빠진 광호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외모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그는 P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시작한다. 외투를 맞추고 구두를 사고 아침마다 '화장'도 한다. 오늘날 많은 남성들에게 자연스러운 일과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이 '화장'은 「윤광호」의 시대만 하더라도 광호의 '공동'을 두드러지게 하는 특이한 행태로 받아들여진다. 소위 '미안수와 클럽 백분'으로 화장하는 남자는 우리 시대에 이르러 더 이상 이상한 것으로 간주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동성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 광호의 화장은 오늘날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이상한' 것으로 간주되기는 한다. 화장은 대개의 경우 이성에 대한 유혹

20) 이광수, 「윤광호」, 앞의 책, p.99.

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호의 성에 관한 선진적인 전복성은 이광수의 성장소설들에 나타나는 새로운 남성 영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적인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¹⁾

처녀작으로 알려진 일어소설 「사랑인가」(『백금학보』, 1909.12) 역시 동성에 대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명치학원 동창회보에 ‘韓國留學生 李寶鏡’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소설은 분기찌(文吉)라는 18세 된 남학생이 미사오(操)라는 남학생을 사모하여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자살을 결심하고 기차선로에 누워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다. 그리 길지 않은 소설의 많은 부분이 문길이 미사오를 찾아가 그를 부를까말까 망설이며 머리 속으로 벌이는 공상으로 채워져 있다. 여기서 이 소설이 이후 한국어로 쓰인 이광수의 초기의 단편소설들, 즉 「소년의 비애」, 「윤광호」, 「방황」, 「어린 벗에게」, 「혈서」, 「사랑에 주렸던 이들」 등의 한 회귀적 단위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만하다.²²⁾ 특히,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얻으려는 자가 대면하기 마련인 두근거림과 망설임, 기쁨과 슬픔, 실망과 비애, 분노 등의 감정들에 관한 세

21) 한승옥의 앞 논문은 「윤광호」를 섹슈얼리티의 해방에 이르지 못한 동성애라는 차원에서 동성애를 다루기보다 세상의 무정함을 드러내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남성의 감정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고자하는 「윤광호」의 동성애적 감정은 성적 취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윤광호」의 동성애는 아직 분화되지 못한 이성애의 과도기적 양상으로 이해될 필요는 있다. 사실 『무정』의 이형식이 처음 김장로의 집에 가정교사로 가서 그의 딸 선형을 가르치게 될 때, 처음 보는 처녀와 무릎이 닿을까 저어하고 입에서 냄새가 나면 어쩔까 걱정하는 모습은 위에서 살펴본 사랑의 감정에 들 뜬 광호의 소심한 행위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형식의 이성애가 구체적인 표상을 얻기 위해선 윤광호의 동성애적 감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2)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의 이해』(일지사, 1973), p.317~321.

밀한 묘사는 비록 그것이 미숙하고 과장되어 있다하더라도 새로운 남성 영웅들의 젠더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분기찌(文吉)는 시부야에 있는 미사오(操)를 방문했다. 무한한 즐거움과 기쁨과 희망이 그의 가슴에 넘쳐 흘렀다. 도중 몇 사람의 친구를 방문한 것은 단지 구실을 만들기 위함이다. 밤은 길고 길은 질퍽했지만 그럼에도 귀찮아하지 않고 분기찌는 미사오를 방문한 것이다.

그가 문밖에 이르렀을 때의 마음을 말한다면 실은 무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기쁜 것인지, 슬프다 할는지, 부끄럽다 할는지 심장은 빠른 종소리처럼 두근거리고 숨은 거칠었다. 어쨌든 이때의 상태는 그의 기억 속에 삼 분도 머무르지 않았다.²³⁾

미사오에게 사랑을 고백하러 간 문길은 자신이 온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과 또 그것이 알려질까 꺼리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한다. 열 살 때 부모를 여윈 채 홀로 세상의 쓰고 신 맛을 보며 분투해온 문길은 동경에 나와 중학 3년에 입학한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고독과 적막의 상념을 꽃피우기 시작한다. 정신없이 친구를 찾았지만 그에게는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운동회에서 우연히 만난 한 소년의 존재로 인해 돌연 이제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는 그 소년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괴로워하고는 또 생각’한다. 그러다가 결국 그에게 ‘혈서’를 써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의 거절에 괴로워하다가 철로에 누워 자살할 결심을 한다. 그의 마지막 바람은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에게 안겨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사랑인가’의 문길이 보여주는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은 낭만주의

23) 위의 책, 321.

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만하다. 낭만주의는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설파한다. 이광수의 성장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명제의 신봉자들이다. 「사랑인가」의 문길은 죽기를 결심한 뒤 ‘한 번 안겨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윤광호」 역시 “人生에서 愛情을 떼어놓으면 차마 어찌 살랴” 하며 자살한다. 이 점은 「어린 벗에게」의 임보형을 통해 이성애로 이어진다.

나는 富貴도 없나이다, 名譽도 없나이다, 내게 무슨 아까울 것이 있사 오리이까-오직 「사랑」을 아끼이로소이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快樂과 남이 나를 사랑하여 주는 데서 오는 快樂을 아끼이로소이다. 나는 그대의 손을 잡기 爲하여, 그대의 香氣로운 입김을 맡기 爲하여, 차디 차고 쓰디쓴 人世의 曠野에 내 몸은 오직 그대를 안고 그대에게 안겼거니 하는 意識의 짜르르 하는 妙味를 爲하여 살고자 함이로소이다. 그대가 만일 平生 내 머리를 짚어주고 내 손을 잡아준다면 나는 즐겨 一生을 病으로 지내리이다. 蒼空을 바라보매 모두 차디차디한 別인 中에 오직 따뜻한 것은 太陽인 것같이 人事의 萬般現象을 돌아보매 모두 차디차디한 中에 오직 따뜻한 것이 人類 相互의 愛情現象뿐이로소이다.²⁴⁾

위에서 보듯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부귀와 명예도 아닌 오직 사랑에 의한 것뿐이라고 설파하는 「어린 벗에게」의 임보형의 목소리는 「사랑인가」의 문길과 「윤광호」의 광호의 목소리를 보다 논리적으로 조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목소리는 이광수 문학의 애초의 출발점을 생각할 때 그다지 낯선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은 듣고, 맛은 못 본 조선인’들이 이 사랑에 목숨을 걸 때 그것은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랑은 이 인물들이 생

24) 이광수, 「어린 벗에게」, 앞의 책, p.67.

각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살갑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은 때로 난폭한 열정으로 사회적 제도와 충돌하고 ‘잘 나가던’ 개인들을 침몰시킨다. 「사랑인가」의 문길은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사회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건만 결국 사랑이라는 열정에 휘말려 죽음을 선택한다. 「윤광호」 역시 특대생으로서의 찬란한 미래 대신 P에 대한 사랑이 거절당하자 자살을 선택한다. 「어린 벗에게」 역시 마찬가지다. 배가 뒤집히는 환난을 겪은 끝에 임보형과 김일련은 결국 “서로 對坐하였으니 兩個의 靈魂이 제 맘대로 鼓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들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김일련은 폐병으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고 임보형은 미국행을 포기하게 된다. 이제 그들은 예전의 아름답던 청춘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微妙한 줄이 萬人の 맘과 맘에 往來하니 이 줄이 明日에 甲과 乙과를 어떠한 關係로 맺어 놓고 丙丁과 戊巳와를 어떠한 關係로 맺어 놓으리이까. 나는 모르나이다, 모르나이다.”(p.90)라고 외치는 임보형의 내면은 사랑을 확신할 수 없는 자의 두려움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결말들은 이광수의 소설들에서 수행적 여성성에 의한 성적 정체성의 혼돈과 낭만적 사랑에 대한 찬미가 영원히 고양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성적 정체성의 전복은 이 작업을 전유하고 있는 남성 영웅들의 죽음 혹은 자기희생의 대가를 토대로 겨우 그 흔적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이 죽음과 자기희생을 사회적 인습에 대한 저항과 분노의 메시지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열정으로도 뚫을 수 없는 인습의 벽, 즉 ‘젠더적 경계’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요컨대, 이는 성을 교란한 자들에게 사회가 부여하는 일종의 사회적 ‘거세 혹은 참수(carstration)’에 가깝다. 즉, 수행적 여성성

은 재래의 남성상에 나타나는 구태의연한 성적 고정 관념을 넘어 새로운 남성 영웅을 창안하고 사랑이라는 내면적 도덕률을 고취시킨 측면이 있지만, 통합적인 사회적 자아가 요구되는 순간 다시 은폐되고 지양되어야 할 가면이라고 할 수 있다.

4. 감정교육과 근대남성의 탄생

이제 본고는 이광수의 성장소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껏 고양된 사회적 금기를 고정시키고 성적 정체성의 혼돈을 징계하는 미시적 규율 장치로 기능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힐 단계에 이르렀다. 감정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우리는 이광수의 초기 단편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종교임을 살펴보았다. 그들에게 있어 사랑은 「어린 벗에게」의 입보형이 설패하고 있는 것처럼 “人生의 目的이니 마치 나고 자라고 죽음이 사랑의 避치 못할 天命임과 같이 男女의 사랑도 避치 못할 또는 獨立한 天命”²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가나 도덕가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애정을 이르는 것이 아님은 물론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도 억압될 수 없는 일종의 본능에 가깝다. 그러나 바로 그 점으로 인해 그들의 ‘애정 지상주의’는 사회제도 및 관습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소설의 사건이나 모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대부분 ‘개인의 본성에 근거한 사랑’과 ‘인습으로서의 사랑’의 충돌 혹은 실연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²⁶⁾

25) 위의 책, p.72.

「소년의 비애」는 이 갈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전면화 된 작품이다. 개인의 의지에 반하는 사회적 인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를 막아낼 도리가 없는 무력한 자신에 대한 극적인 대립이 이 소설의 '비애'를 완성하고 있어 주목된다. 문호는 재주 있고 영특한 종매 난수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러나 그 난수가 부모의 강권과 양반 체면 때문에 천치 신랑과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격노한다. 난수에게 깃들어 있는 아까운 시재가 그만 썩어지고 마는 것이 안타깝고 한스러운 것이다. 이는 '소년'에게 가해진 사회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이 폭력을 거부하고 인습을 파괴할 뾰족한 방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인습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자각할 뿐이다. 그는 부모의 강요로 천치 신랑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랑 도망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힘이 있으면 그 악한 무리(난수를 천치에게 던져주는)들을 온통 때려 부수고 그 무리들의 손에서 죽는 난수를 구원하여 내고 싶다”(p.64)고 주먹을 부르르 쥔다.

난수의 천치신랑은 이 모든 어처구니없는 인습을 상징하는 '기괴함(grotesque)'의 베타포이기도 하다. 괴물(기괴함)에 대항하는 자는 괴물을 닮을 수밖에 없다. 「방황」이 승려적 삶의 가능성을 자문해본다거나 「윤광호」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으며 「어린 벗에게」가 편지를 통한

26) 이는 이광수 소설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당대 대부분의 소설들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갈등구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당대의 여성소설들은 이 문제를 전면화하고 있어 주목되는 바가 없지 않다. 김명순의 「처녀의 가는 길」이나 김일엽의 「어느 소녀의 사」 등이 그러한데, 이들 소설들은 부모로 표상되는 전근대적 인습에 대항하는 여성인물들의 존재론적 결단, 즉 가출이나 자살 등을 '소설적' 요소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 근대소설사에 있어서 사랑의 추구가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파국은 유형화와 계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모티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면고백을 통해 기혼남의 열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본성으로서의 사랑을 향한 추구가 사회적 금기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사랑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사회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이 편지를 써놓고 나는 再三 생각하나이다. 이것이 罪가 아닐까. 나는 벌써 婚姻한 몸이라 다른 女子를 사랑함이 罪가 아닐까. 내 心中에서는 혹은 罪라 하고 혹은 罪가 아니라 自然이라 하나이다. 내가 婚姻한 것은 내가 함이 아니오, 나는 男女가 무엇이며 婚姻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前에 父母가 任意로 契約을 맺고 社會가 그를 承認하였을 뿐이니, 이 結婚行爲에는 내 自由意思는 一分도 들지 아니한 것이요. 다만 나의 幼弱함을 이용하여 제 三者가 強制로 行하게 한 것이니, 法律上으로 보든, 倫理上으로 보든지, 내가 이 行爲에 대하여 아무 責任이 없을 것이라.²⁷⁾

기혼남으로서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음을 강변하는 「어린 벗에게」의 임보형의 주장의 핵심은 자유의사에 있다. 혼인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부모, 혹은 사회로 대변되는 제 삼자라면 그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폐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속력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혼남이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일종의 '자연적 욕망'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법률이나 윤리의 틀로 가둘 수 없는 보다 근원적인 감정이라는 것이다. 이 감정의 명령에 따라 임보형은 자신의 마음을 앗아간 김일련에게 편지를 쓰고 사랑해주기를 간청한다. 이 행위는 관습화된 섹슈얼리티를 재편하고자 하는 새로운 윤리 도덕의 출발점이

27) 「어린 벗에게」, 위의 책, p.77.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도덕을 입법하고자 하는 욕망이 언제나 사회적 승인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들 소설들이 「어린 벗에게」에서 두드러진 것처럼 주장주의를 천명하는 이광수의 허다한 논설들의 논조를 다시 한 번 반복하기만 한다면, 소설 장르의 고유한 미학적 자질을 논하기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시민적 율법을 내면화한 ‘소설’이기 이전에 주관적 환상의 세계인 ‘로맨스’로 달려갈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의 욕망은 결국 거대한 사회적 압력에 의해 거세당함으로써 ‘소설’이 된다. 「소년의 비애」의 문호는 난수가 천치 신랑과 결혼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난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문호는 방에 들어가 以前 앉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處女들도 以前 모양으로 文浩를 中心으로 하고 둘러 앉는다. 그 어머니는 如前히 닭을 잡고 떡을 만들어 文浩와 文海와 둘러앉은 處女들을 먹인다. 그러나 三年前에 있던 즐거움은 永遠히 스러지고 말았다.

문호는 울고 싶었다. 그러나 三年前과 같이 눈물이 흐르지 아니한다. 문호는 마주앉은 문해의 까맣게 난 鬚髯을 본다. 그리고 손으로 自己의 턱을 쓸며,

“문해야, 우리 턱에도 수염이 났구나.”하며 턱 아래 한치나 자란 외대 수염을 툭툭 잡아채며 웃는다. 28)

「소년의 비애」의 마지막 장은 소설이 어떻게 욕망을 내면화시키는지와 관련하여 상당히 암시적이다. 소년들의 열정은 결국 시간의 힘 앞에서 변모, 좌절될 수밖에 없다. 난수의 혼인식 때 어른들의 인습적

28) 「소년의 비애」, 위의 책, p.65.

행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던 소년들은 그들 역시 시간이 흘러 '수염'이 까맣게 난 '어른'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동경으로 공부하러 간 사이 아들들은 벌써 세 살이 되었고 이제 '少年의 天國'은 영원히 지나갔다. 이를 깨닫는 순간 그들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동요되지만 (울고 싶어 하지만) 소년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다. 시간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멜랑콜리(melancholy)가 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이때의 비애는 일종의 우수라고 할 만하다. 소년의 열정이 그에겐 남겨놓은 것은 가슴을 찌르는 듯 한 우수뿐이지만 그는 이 우수 덕분에 보다 확실하게 어른이 되었다. '어른'에게 있어 환상의 상실은 바로 지혜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는 明日 일을 豫想할 수 없고 瞬間 일을 豫想할 수 없나이다. 다만 萬事를 造物의 意에 付하고 이 列車가 우리를 실어가는 데까지 우리 몸을 가져가고 이 靈魂을 끌여가는 데까지 우리는 끌려가려 하나이다.”(p.90)라는 「어린 벗에게」의 마지막 대목 역시 일종의 체념섞인 멜랑콜리로 볼 수도 있다. 법률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자신의 사랑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역설하던 임보형은 조난으로 인한 김일련과의 재회를 통해 만사가 조물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 즉 제 삼자의 의사가 개인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 그에 따르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영혼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일뿐이다. 결국 그는 개인의 자유의사 혹은 자유의지는 소위 조물로 상징되는 더 큰 존재의 자유 내에서만 자신의 자발성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치명적이다. 이 각성을 내면화함으로써 소년들은 비로소 어른이 되기 때문이다.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이 함축하듯이 감정교육은 수업과정의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옮겨가면서 맛보는 갖가지 희망이나 씩씩한 환멸과

무관하지 않다. '감정'은 '교육'을 거치면서 인간 본연의 자발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감정교육의 핵심은 내면화된 자발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면화된 자발성은 궁극적으로 근대적 주체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²⁹⁾ 이제 이광수의 성장소설 속의 소년 혹은 청년들은 감정교육에 내포된 환멸을 경험하며 어른, 곧 근대적 남성의 세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근대적 남성이 이전의 어른들, 즉 그들이 그토록 구별되고자했던 재래의 남성으로 되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어른'이 되 '새로운 어른'이다. 비록 자신들이 주장하던 새로운 도덕적 입법이 사회적 제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가 강요하는 관습을 그대로 수락하고 그 규율로 자신들을 무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제도와 욕망의 경계선을 새롭게 확정짓고 욕망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간다. 말하자면, 도덕을 재편하고 욕망을 재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김경」은 이 근대남성의 내면적 도덕률을 선보이고 있어 인상적이다. 김경은 무엇보다도 '의의 있는 생활'과 '자각 있는 생활'을 하리라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이 욕망은 '성공욕을 만족시킬 만한 사업' 즉, '일생을 바쳐 후회하지 않을 사업'을 꼭 붙들 것이라는 각오로 구체화된다. 만약 지금 그것을 이루기가 이르다면 '실력'을 길러 기필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것임은 물론이다. 김경이 털어놓고 있는 이 욕망의 열도는 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수정하는 도덕적 완벽주의자로 만든다. 사실, 그는 이 욕망을 가슴에 품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사회적

29) 허병식은 「식민지 청년과 교양의 구조」(『동악어문논집』 41, 동악어문학회, 2003)에서 『무정』을 근대적 주체 산출 담론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며 이형식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인격 형성 과정, 즉 독서에 전념하고 여행을 통해 자아의 각성에 이르는 교양의 과정에 주목한다.

기대와 요구, 학생들의 신망 등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오산에 있는 OO학교가 점점 좁게 여겨지고 자신의 미래를 회의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욕망을 완성하기에는 오산이 너무 작게 여겨진 것이다.

이 자각과 함께 김경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계획'들을 수립한다. '침묵할 것, 경숙할 것, 자세히 모르는 바를 말하지 말 것, 매일 문이나 시를 한 편씩 짓고 일백 항 이상 독서할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그는 현실에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담이나 허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럴 때면 별 수가 없다. '새로운 작정'을 다시 하는 수밖에. '重, 認, 愛(아내를 사랑하기), 예습 없이는 교수하지 않기, 난독을 금하고 규범과학을 읽을 것' 등이 새롭게 수립된 계획들이다. 이 대목은 김경의 독서편력만큼이나 감동적인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단히 자신의 욕망을 '인격적'으로 '완성'해나가는 김경의 내면적 규율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논어'와 '중용' 등 기존의 도덕적 규범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나 다른 한편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덕목들을 조금씩 추가함으로써 조화롭고 균형 잡힌 남성상을 창조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이런 식의 내면적 절제는 광포하고 열정적인 주정주의가 감정적 내면화를 거친 뒤 마련한 인격적 도야의 한 절정이라고 할 만하다. 결국 근대남성이란 이 도덕률로서 스스로를 다른 남성들과 구분시킨다. 주정주의가 '도덕의 원천'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

5. 결론

『청춘』에 게재된 이광수의 소설들은 한 남성의 일련의 성장의 기록을 내포함으로써 근대적 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근대 남성이란 무엇보다도 기존의 관습에서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자질들, 예컨대 외로움에 대한 자각과 그로부터 기인하는 사랑에 대한 갈망 등을 내면화한 존재들이다. 「방황」, 「어린 벗에게」, 「윤광호」 등에 두드러진 이 감상적인 면모는 이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기존의 남성적 영웅들을 전도시키고 삶을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역사상 최초의 인류들이다. 그것은 시민적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기도 하다. 시민계급은 감정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도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미식가가 미각을 훈련하듯 도덕적인 감정 또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도덕은 감정의 훈련이며 고도의 사랑의 문화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적 감성으로 훈련된 새로운 남성 영웅들은 젠더적 경계를 무화시키고 스스로를 ‘수행적 여성성’으로 무장한 젠더상의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가면무도회에서 가면을 바꿔 쓰듯 그들은 오랜 세월 ‘남성 되기’와 ‘여성 되기’의 결과 만들어진 남녀의 고정된 성정체성에 의문을 제시한다. 이광수 최초의 일어 단편 「사랑인가」를 비롯하여, 동성애적 성향을 선보인 「윤광호」와 「어린 벗에게」가 문제적인 것은 그 때문이다. 그것들은 성에 관한 고정된 경계를 이월하며 관습화된 성역할을 가볍게 넘어선다. 그러나 이 이월이 영원히 찬미되거나 고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행적 여성성으로 젠더상의 경계를 교란시키고자하는 욕망은 언제나 사회적 제도나 금기와 충돌한다. 관

습적인 제도는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욕망을 교화하고 다스리려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다. 이광수의 소설 속에서 이 과정은 주인공의 자살 및 죽음 충동, 자기희생 등의 방식으로 표출된다. 죽음이야말로 사회가 금기를 넘어서고자하는 욕망에 가하는 가장 상징적인 거세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이 말해주는 것처럼 감정교육은 수업과정의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옮겨가면서 맛보는 갖가지 희망이나 쓸쓸한 환멸과 무관하지 않다. ‘감정’은 ‘교육’을 거치면서 인간 본연의 자발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 교육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소설은 이 사회적 제도의 보존과 금기의 유지를 관철시키고자하는 시민계급의 욕망의 조절장치다. 이광수 역시 이를 모르지 않는다. 『소년의 비애』에 두드러진 멜랑콜리는 이 내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애의 다른 이름이다. 소년들은 이 비애를 거쳐 드디어 사회적 입사에 성공하고 어른으로 자리 잡는다. 소설이 배태시킨 이 어른을 근대적 남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 남성은 환멸과 더불어 어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어른이 기존의 어른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자발적 욕망과 사회적 관습 사이를 중재하고 새로운 내면적 도덕률에 기초한 감정의 세련을 이루어낸다. 『김경』이 보여주고 있는 계획하고 수정하며 끊임없이 욕망을 조율하는 인간형은 전형적인 부르주아지의 윤리학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광수에게 있어 정의 만족이란 미감이나 쾌감과 관련된 감각의 확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보다 사실적인 일련의 감성의 내면화를 지칭하는 용어라 할 만하다. 그는 당대의 다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일찍이 간파한 바 있으며 다양한 근대적 규율장치들을 동원하여 이를 실천해왔다. 무엇보다도 『청춘』에 게재

된 단편소설들이 이를 말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광수를 우리 문학사에서 감정교육가, 내면적 도덕률의 창안가로 기억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가 교묘하게 활용하고 전유한 젠더적 장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적 자질로 간주되어온 덕목들을 전유하는 수행적 여성성이 아니었다면 근대남성의 내면적 도덕률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 시대를 풍미할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우리 문학사가 이광수의 문학을 젠더적 측면에서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는 우리 시대의 젠더-발명가에 다름 아니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광수, 『전집』(삼중당, 1971).
 ———, 『김경』, 『청춘』, 영인본(역락, 2001).
 ———, 『사랑인가』,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의 이해』, 1973.

2. 단행본 및 논문

- 김근수,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목록』, 재판본(한국학연구소, 1988).
 김병구, 『이광수의 『무정』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4(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4).
 김복순, 『『무정』과 소설 형식의 젠더화』, 『대중서사연구』 14(대중서사학회, 2005).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986.
 나병철, 『이광수의 성장소설과 가족 로망스』, 『비평문학』 21(한국비평학회, 2005).
 서영채, 『사랑의 문법』(민음사, 2004).
 이경훈, 『오빠의 탄생』(문학과지성사, 2003).
 이동재, 『이광수의 '정'과 한국 근대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24(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 이종호, 「이광수의 『부정』론」, 『어문연구』 121(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임영봉, 「이광수 문학과 식민지 근대 체험」 119(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 임옥희, 「젠더의 가면무도회와 불확실한 삶」, 『문예중앙』, 2005. 겨울호.
- 최덕교, 『한국잡지 백년』(현암사, 2004).
- 최주한, 「개조론과 근대적 개인」, 『어문연구』 124(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한승옥, 「동성애의 관점에서 본 <부정>」, 『현대소설연구』 20(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 허병식, 「식민지 청년과 교양의 구조」, 『동악어문논집』 41(동악어문학회, 2003).
- Ariès, Philippe, *L'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ancien régime*,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새물결, 2003).
- Armstrong, Nancy, *Desire and Domestic Fiction: A Political History of The Nov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Butler, Judith, *Antigone's Claim*, 조현순 역, 『안티고네의 주장』(동문선, 2000).
- Rath, Wolfgang, *Liebe Die Geschichte eines Dilemmas*, 장혜정 역, 『사랑, 그 딜레마의 역사』(이끌리오, 1999).
- Tavris, Carol, *The Measure of Woman*, 히스테리아 역,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또하나의문화, 1999).

Abstract

The Emotional Education and The Birth of the Modern Man

— The World of Lee, Gwang Soo's Early Novels —

Shin, Soo-Jung

Novels of Kwang-soo Lee which were published on *The Youth*, are successful in describing sensitively what a modern man means by containing a series of records of a man's initiation. According to the novels, a modern male, among other things, was an existence which internalized dispositions which had been regarded as those of females by then-existing customs, for example recognition of loneliness and aspiration for love originating from the former. They are the first men in human history who subverted pre-existing masculine heroes and experienced the life as a series of events which induced emotional reactions. These new male heroes can be seen as "females" in terms of gender who demolished the boundaries of gender and equipped themselves with "performative femininity." However, this transfer cannot be admired or encouraged forever. Desire to stir up the boundaries of gender with performative femininity always collides with social institutions or taboos. This is why emotional education becomes very important. "Emotion" tends to lose voluntariness of human's inborn nature through "education." But, if there is no such education, society cannot be maintained. Novels are agency of the desire of civil class to carry through preservation of social institutions and maintenance of taboos. Civil classes who go through this agency can

mediate between their voluntary desire and social customs and finally achieve refinement of their emotion based on new internal moral rules. Kwang-soo Lee is the novelist who described this apparition in most typical way in our history of novels. This is why we call him emotional educator or inventor of internal moral rules. However, it is necessary for us to note the gender devices he elaborately utilized and appropriated in this process. Without the performative femininity which appropriated virtues which had been regarded as feminine dispositions, internal moral rules of modern males could not have been so widespread in our times with such a speed. He is not anything else than a gender inventor of our times.

key words : initiative novel, gender, sentimentality, performative femininity, emotional education, internal moral rules, gender inventor.

■ 위 논문은 4월 3일 투고되어, 5월 6일 심사완료 후, 5월 12일 게재가 확정되었음.